30

5월 셋째 주

셀그룹교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흰 보좌 심판!(2)

- 읽을 말씀 계 19:6-1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19장에 숨겨진 휴거와 재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재림 전에 대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 하나님은 왜 재림 전에 전후무후한 대환난을 허용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인류의 마지막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흥이나 대추수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대환난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난이 끝날 무렵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7)라고 말합니다.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8). 즉 대환난을 통해 준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환난을 통해 준비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롬 5:3-4, 약 1:2-4, 벧전 1:6-7).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해 진짜로 끝이 다다랐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양의 신부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 "…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7-10)**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최고의 박해시기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좌우하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종말을 대

비하라」에서 "대환난을 단순한 환난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 하나님의 채찍으로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 기간은 연단과 정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환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동성애가 관영하고, 모든 윤리와 기준이 무너지고, 사람이 육체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세상만 이렇게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바울이 예언한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 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WCC와 NCCK 소속 교단들과 교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복음, 통합, 침례교의 가장 큰 교회 목사들이 부산 WCC 총회 유치에 앞장섰습니다. 또, 연합단체들과 교단들과 기독교언론은 교만과 탐심,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형제사랑은커녕 기본적인 공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개교회들도 은사중지론의 영향으로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터부시하고 지식적이 되어버려 선교와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이 정통 행세를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가 다수의 교회와 목사와 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심히 적습니다. 밥 존스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비율이 20%정도 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후체험 간증이 격하게 공감이 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대환난이라는 매서운 매를 듦으로써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생결단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입니다. 음녀와 같은 교회들을 어린양의 신부로 변화시키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난을 겪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지옥을 면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백배는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3)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단 7:13, 마 24:30, 26:64, 막 13:26, 14:62, 눅 21:27, 계 1:7). 저는 전에 '구름은 수증기인데, 어떻게 구름을 타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계실 때도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마 14:25-29). 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을 갖고 계십니다. 영화로운 몸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재림을 묘사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11-14).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학자들은 재림이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재림과 백마 타고 오시는 지상재림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환난 전 휴거설의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통과설을 믿는 그 누구도 이런 현저한 차이를 조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과설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계시록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수많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사탄을 용으로,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바벨론을 음녀로 묘사한 것을 위시해서 수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면 둘 사이의 모순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정확히 상징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단서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14-16)**에 나옵니다. 17-18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실제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환상' 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보이고 환상 속에 나오는 자들도 실제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교훈을 주기 위해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금 촛대로 시작합니다.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도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

므로 이곳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실제 모습이 아니라 상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랜트 오즈번도 "흰 머리카락, 불꽃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선 검이 나오는 입. 이 이미지들의 집합은 예수님의 용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이 맞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19장에 나오는 예수님 "**그 눈은 불꽃 같고 …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12,15) 의 일치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과 마찬가지로 19장의 예수님의 모습도 실제가 아니라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와 목사들이 상징으로 이해했는데, 그 중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 존 왈부드까지 "여기서 백마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사악한 세력들을 이기신 데 대한 상징이다."라고 썼습니다.

말을 타고 전쟁한다는 것은 너무도 구시대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과 모순이 아니며, 환난 전 휴거설의 결정적인 증거도 아닙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환난이라는 매서운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회개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필사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